

2010 년 봄학기
전 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하나님의 비밀들을 맡은 청지기들

메시지 17

하나님의 건축의 원칙 안에 살고 행하여
하나님의 충만—하나님의 넘쳐 흐름—인 교회가 됨

성경: 요 2:19-22, 12:24, 고후 4:16-18, 요 1:16, 엡 1:19-23, 3:16-21

- I. 하나님이 사람 안에 거하시고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상호 거처—하나님의 건축물—
가 하나님의 최종 목표이다. 하나님의 건축의 원칙은 그분이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건축하시고 사람을 그분 안으로 건축하시기 위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 A.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것을 방해하고 거절하고 부인하는 것은 다 사탄의 일이다.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무너뜨리는 일이다—마 16:18, 21-
24.
- B.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건축물의 원형이시다. 하나님의 건축물은 하나님-사람이다.
1. 주 예수님께서 육체 되심으로 입으신 인성까지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무너뜨려져야 할 옛 창조에 속한 것이었다—요 1:14, 2:19-22, 5:19, 30, 비교 마
3:15-17.
 2.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성 안에서 옛 창조에 속한 인간 씨이셨으므로 육체 안의
그리스도는 ‘옛 사람’이셨다. 그리스도는 죄 없는 육체를 가지셨지만 여전히
죄의 육체의 모양 안에 계셨다—롬 6:6, 골 1:15, 요 1:14, 롬 8:3.
 3. 주님의 부활은 죽음으로 무너뜨려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안으로 이끌어 그분의
인성을 신성 안으로 건축해 넣어 그분을 하나님의 건축물의 원형이 되게 했다—
요 12:24, 롬 1:3-4, 8:28-29.
- C.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개인적인 성전이었던 그리스도의 육신의
몸은 하나님의 단체적인 성전인 그리스도의 비밀한 몸으로 증가되었다—요 2:19-22,
14:2, 23, 딤후 3:15, 고전 3:16-17.
- II. 욥기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인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어떻게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건축하시고 우리를 그분 안으로 건축하시는가를 제시한다.
- A. 욥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 안에서 새로워진 욥을
건축하시기 위해 자기의 완전함과 정직함 가운데 있는 천연적인 욥을 무너뜨리시는
것이였다—욥 1:1, 딤후 3:5, 고후 4:16-18, 시 68:19, 비교 롬 8:28-29.
- B. 하나님은 그분 자신으로 욥을 재건축하실 근거와 길을 갖도록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 욥을 벗기시고 태우셨는데, 그것은 욥이 그분의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그분의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표현하게 하기 위한
것이였다—욥 10:13, 비교 엡 3:9.
1. 욥의 영광은 그의 완전함과 정직함이었고, 그의 면류관은 그의 고결함이였다.
욥이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벗기시고 그의 머리에서 면류관을 벗기셨다고
말한 것은 맞는 말이였다—욥 1:1, 27:5, 19:9.

2. 옴의 소망은 그의 고결함의 ‘나무’를 세우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무가 옴 속에서 자라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무, 이러한 소망을 뽑아 내셨다—10 절, 비교 사 64:6-8.
 3. 하나님께서 비록 옴을 벗기고 계셨지만 그분은 결코 옴에게 분노하신 것이 아니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옴을 그분의 대적으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친밀한 친구로 여기셨다—옴 10:12-13, 비교 겔 14:14, 20.
- C.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백성을 다루시는 목적은 그들의 모든 것이 비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그들의 유익으로 받게 하려는 것이다—빌 3:8, 시 73:23-26.
- D.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을 더 깊이 추구하는 데로 옴을 인도하시어 옴이 그의 인생에서 부족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표현하게 하려는 것이었다—골 2:19.
- E. 하나님의 의도는 옴을 하나님의 체현인 그리스도로 채워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충만이 되게 하는 것이었다—딤후 6:11, 딤후 3:17, 엡 3:14-21.
- F. 옴은 성경의 육십육 권이 오직 한 가지—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에 의해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고 넣는 일을 하시어 우리의 생명과 본성과 모든 것이 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표현하게 하는 것—를 위한 것임을 제시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옴 10:13, 엡 2:10, 3:9, 빌 3:8-9, 엡 1:22-23, 2:15, 갈 6:15, 계 21:2.

III.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의 원칙 안에서 살고 일하여 그리스도의 충만이자 하나님의 충만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엡 1:22-23, 4:13, 3:19.

- A.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 그리스도의 표현, 그리스도의 넘쳐흐름이다.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넘쳐흐르는 풍성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인 교회의 내용이다—1:22-23, 4:8-10, 요 3:34.
1.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넘쳐흐름, 하나님의 표현과 충만이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넘쳐흐름, 그리스도의 표현과 충만이다—1:16, 4:10, 14, 7:38-39, 비교 엡 5:18-20.
 2. 내려가셨다가 올라가신 분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으로 여행하시어, 우리 속에서 내려가시고 올라가심으로 은혜로운 방문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가 침체될 때에는 그리스도도 우리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올리시어 우리를 그분의 몸에 대한 선물로 조성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충만이 되게 하신다—4:7-11.
 3.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되고 그리스도의 풍성의 표현과 넘쳐흐름이 될 때까지 이러한 풍성들을 누림으로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요한의 글에 제시된 그리스도의 충만의 내용은 은혜, 실제, 생명, 부활, 빛, 길, 음식, 음료, 만족, 자유, 영광, 사랑이다—요 1:16, 14, 11:25, 8:12, 14:6, 6:48, 57, 4:13-14, 7:37-39 상, 8:32, 36, 17:22, 21:15-17, 요일 4:8.
 4. 초월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교회에게 전달하심은 그분의 모든 풍성을 지닌 삼일 하나님의 분배를 포함한다.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그분의 부활의 능력, 승천의(초월하는) 능력, 굴복시키는(정복하는) 능력, 머리가 되는(다스리는) 능력—은 ‘우리 안에서’ 발휘되고 있으며, ‘믿는 우리를 향한’ 것이며, ‘교회에게’ 주시는 것이다—엡 3:20, 1:19-23.
 - a. 교회는 삼일 하나님의 이러한 지극히 위대한 사증 능력의 저장소이다.
 - b. 이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되었을 때 이 능력은 그분을 머리로 만들었다. 이 능력이 우리 안에서 발휘될 때 이 능력은 우리를 몸으로 만든다.

- c. 이 능력의 신성한 전달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이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3:16, 20, 빌 3:21 하, 4:13, 골 1:29.
 - d. 이 능력의 신성한 전달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죽음에서 완전히 나오고자 하는 강한 갈망을 가져야 한다—계 3:1, 고후 3:6, 5:4.
- B.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넘쳐 흐름이다—교회에 대한 최고의 정의는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것이다.
1. 하나님의 충만은 우리가 우리 속으로 분배된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누린 결과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내주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존재를 우리 속으로 나눠주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으로 만드신다. 사실상 에베소서 1 장 23 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충만은 바로 3 장 19 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이다.
 2. 에베소서 3:16-19 에서 ‘하께’라는 말이 사도의 기도에서 네 번 사용되었다. 사도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강 *하께* 하시기를 기도했고, 그렇게 강하게 된 결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 *하께*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신 결과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차원—너비, 길이, 높이, 깊이—을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께*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이렇게 깨닫고 안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 *하께* 되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들은 신진대사의 과정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가 이러한 풍성을 누림으로 이러한 단계들에 의해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으로 조성된다.
 3. 그러므로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되는 것은 에베소서 3 장에 묘사된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고 더 높고 더 풍성한 체험의 결과이다.
 4. 에베소서 1 장에서 우리의 영은 우리가 교회에 관한 계시를 받아들이기 위한 기관으로 계시되었다. 에베소서 3 장에서 우리의 영은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한 인격, 속 사람이다.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도록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영 안으로 성령을 통해 삼일 하나님의 사중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야 한다.
 5.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속 부분들(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의 총체이고 우리의 내적 존재의 중심이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실 때 우리의 내적 존재 전체를 통제하시고 속의 각 부분에 그분 자신을 공급하시고 속의 각 부분을 그분 자신으로 강하게 하신다.
 6.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능력에 따라, 교회에 관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해 주신다—20 절.
 7.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에 따라 강하게 되어 속사람에 이르고 있으며, 그럴 때 교회 안에서 그분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일을 한 후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16, 21 절.